

#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합 연구 :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우진주, 곽은미, 이혜진\*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 The convergence study of smartphone overuse on cyberbullying : Focusing on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Jin-Ju Woo, Enu-Mi Kwak, Hae-Jin Lee\*  
Dept. of Nursing, Gyeongbuk College of Health

요 약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K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 328명을 대상으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불링은 스마트폰 과다사용( $r=.321, p<.001$ ), 공격성( $r=.397,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공격성( $\beta=.195, p=.014$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은 사이버불링( $\beta=.260, p=.007$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공격성( $\beta=.051, p=.007$ )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고등학생의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규제와 함께 공격성 감소를 위한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주제어 : 스마트폰 과다사용, 사이버불링, 공격성, 청소년, 융합연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certain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in high school students' relationship with smartphone overuse and cyberbullying. Data were collected from 328 high school students in K city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2.0 and AMOS 22.0. The results show that cyberbullying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martphone overuse( $r=.321, p<.001$ ) and aggression( $r=.397, p<.001$ ). Smartphone overuse had a direct effect on aggression( $\beta=.195, p=.014$ ) and aggression had a direct effect on cyberbullying( $\beta=.260, p=.007$ ). In addition, the mediation effects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use and cyberbullying were confirmed( $\beta=.051, p=.007$ ). In order to reduce cyberbullying in high school students, it will be necessary to develop cyber ethical awareness education programs to reduce aggression as well as regulations on excessive use of smartphones.

**Key Words** : Smartphone overuse, cyberbullying, aggression, adolescence, convergence study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인터넷은 학생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있는 커

뮤니케이션 채널로 발전했다.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보급은 학생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사이버 공간에 접근할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자신의 개성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새로운 정보의 습득과 다양한

\*Corresponding Author : Hae-Jin Lee (hlee0629@gch.ac.kr)

Received March 2, 2018

Accepted May 20, 2018

Revised April 26, 2018

Published May 28, 2018

세계에 대한 경험이 가능하게 되었다[1,2].

온라인 기술에는 많은 이점이 있지만 그 반면에 부정할 수 없는 해로운 영향도 있다. 대표적인 역기능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불링인데 그동안 학교만의 문제라고 생각되어 왔던 전통적인 괴롭힘(bullying)이 최근 전자정보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3]. 사이버불링은 사이버(cyber)와 불링(bullying)이 결합된 신조어로 온라인상에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동을 뜻한다. 다시 말해 쉽게 방어할 수 없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수행된 공격적이며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괴롭힘을 의미한다[4,5].

2013년 인터넷 사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이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6] 스마트폰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의 증가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나 SNS를 통한 청소년 또래문화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단체 카톡방, 페이스북 등을 통한 상시적 괴롭힘이 이루어지는 사이버불링이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7-9]. 특히 고등학생의 38.4%가 사이버 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을 가진 학생도 30.3%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

사이버불링의 원인은 인터넷의 환경적인 특성과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 가정환경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의 대표적인 원인은 비대면성과 익명성이다. 이러한 형태의 괴롭힘은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괴롭힘에 비해 발견과 인지가 어렵고 언제 어디에서나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즉시 위해가 가능하며 경계와 범위가 신속하게 확산된다[1,10,11].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불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2-14].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공격성이나 분노, 우울, 충동, 스트레스 등이 일탈행위로 이어져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15-18]. 공격성(aggression)이란 제 3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처를 주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능동적, 수동적 행동이다[19]. 특히 사이버불링의 피해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공격성이 내재되고 증폭되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즉 가해자와 피해자가 증폭되어 사이버불링의 지속가능성이 높으며[20,21], 교사나 학부모가 안다 해도 익명성으로 인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2]. 가정환경 변

인으로는 부모와의 갈등, 애착,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행동, 통제적 양육태도 등이 보고되고 있다[18, 23-25].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변화와 발달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26].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단절시키기 않으면서 부모와 잘 분리되는 것이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성인기에 건강한 적응을 이루게 된다[23]. 하지만 사이버불링은 우울이나 자살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학업중단, 가출과 같은 문제행동을 발생시켜 청소년기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7,27,28].

사이버불링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등 사회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청소년 문제이다. 한국의 스마트폰 사용량과 보급률은 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편이나[6] 아직까지 과다사용에 대한 규제나 사이버불링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제재는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이버불링은 더욱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과 함께 청소년 세대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중재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스마트폰 과다사용, 공격성, 사이버불링의 정도를 확인한다.
- (2) 스마트폰 과다사용, 공격성, 사이버불링의 상관관계를 확인한다.
- (3)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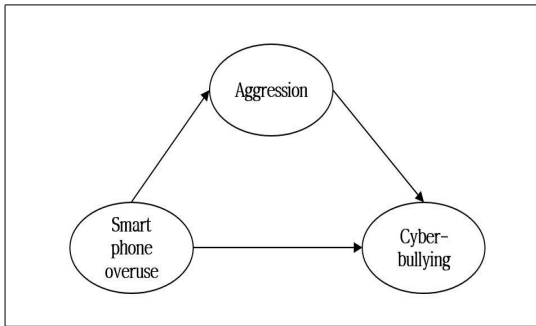


Fig. 1. Conceptual Framework(mediating effect)

##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김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지를 배부하기 전 연구대상자에게 설문내용, 연구목적과 함께 응답한 모든 내용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29] 탈락률과 회수율을 고려하여 총 36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334부가 수거되었으나 응답내용이 부족한 6부를 제외한 총 328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스마트폰 과다사용

스마트폰 과다사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30]에서 개발한 청소년용 스마트폰 과다사용 자가 진단도구를 이용하였다. 일상생활장애, 가상세계지향성, 금단, 내성 등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15 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개발당시 전체 Cronhach's  $\alpha$ 는 .88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hach's  $\alpha$ 는 .82로 확인되었다.

### 2.3.2 공격성

공격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Ko[31]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신체적 공격성, 간접성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의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 21문항, 4점 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다. Ko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Cronhach's  $\alpha$ 는 .81로 확인되었다.

### 2.3.3 사이버불링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Na[32]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3문항,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스마트폰 상에서의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Na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Cronhach's  $\alpha$ 는 .94로 확인되었다.

## 2.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였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변수의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증은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4)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과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였다. 모형의 직, 간접효과와 총 효과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성은 Bootstrapping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성별은 여학생이 89명(27.1%), 남학생이 239명(72.9%)으로 남학생이 많았고, 1학년이 212명(64.6%), 2학년이 116명(35.4%)이었다.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이라고 답한 학생이 206명(62.8%), '보통' 94명(28.7%), '불만족' 28명(8.5%) 순이었고 학교 성적은 1~3등급이 113명(34.5%), 4~5등급 130명(39.6%), 6등급 이하 85명(25.9%) 순이었다.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인 경우가 148명(45.1%)으로 가장 많았다. Table 1

###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마트폰 과다사용, 공격성, 사이버불링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3.297, p=.001$ ).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학교생활만족도( $t=6.752, p=.001$ )와 스마트폰 사용시간( $F=13.518$ ,

Table 1. Study variable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28)

variables	Categories	n(%)	Smart phone overuse		Aggression		Cyber-bullying	
			M±SD	t or F(p)	M±SD	t or F(p)	M±SD	t or F(p)
Gender	Female	89(27.1)	32.10±7.70	-1.792 (.074)	46.02±7.01	1.347 (.179)	19.46±8.04	3.139 (.002)
	Male	239(72.9)	30.58±6.47		47.18±6.92		22.69±8.91	
School year	1st	212(64.6)	30.08±6.87	-3.297 (.001)	45.98±7.33	-3.394 (.001)	20.97±8.33	-2.376 (.018)
	2nd	116(35.4)	32.66±6.52		48.50±5.89		23.36±9.42	
Satisfaction of school life	Satisfied <sup>a</sup>	206(62.8)	29.99±6.73	6.752 (.001) b, c>a	45.91±6.99	5.589 (.004) b>a	20.52±8.22	6.573 (.002) b>a
	Average <sup>b</sup>	94(28.7)	32.35±6.61		48.27±6.45		23.61±8.82	
	Not satisfied <sup>c</sup>	28(8.5)	33.86±7.18		49.21±7.20		25.29±10.88	
Grade	1~3 <sup>a</sup>	113(34.5)	29.80±7.22	2.773 (.064)	46.22±7.16	2.190 (.114)	19.81±8.34	6.372 (.002) c>a
	4~5 <sup>b</sup>	130(39.6)	31.45±6.27		46.56±6.61		21.98±8.57	
	Below 6 <sup>c</sup>	85(25.9)	31.89±7.04		48.20±7.10		24.22±9.15	
Smart phone usage time	Less than 2hrs <sup>a</sup>	113(34.5)	28.99±7.09	13.518 (<.001) c>b>a	46.32±6.95	2.310 (.101)	21.97±8.84	4.117 (.017) c>b
	2~4hrs <sup>b</sup>	148(45.1)	31.03±6.02		46.56±6.66		20.59±7.90	
	More than 4hrs <sup>c</sup>	67(20.4)	34.28±6.97		48.48±7.45		24.25±10.09	

$p<.001$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공격성은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3.394$ ,  $p=.001$ ). 또한 학교생활에 ‘보통이다’라고 한 경우가 ‘만족한다’라고 응답한 경우보다 공격성이 유의하게 높았다( $F=5.589$ ,  $p=.004$ ). 사이버불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t=3.139$ ,  $p=.002$ ), 2학년이 1학년보다( $t=-2.376$ ,  $p=.018$ )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이버불링은 학교생활 만족도( $F=6.573$ ,  $p=.002$ )와 학교성적( $F=6.372$ ,  $p=.002$ ), 스마트폰 사용시간( $F=4.117$ ,  $p=.017$ )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able 1

### 3.3 연구변수간의 상관관계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종속변수인 사이버불링은 다른 연구변수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사이버불링은 스마트폰 과다사용( $r=.32$ ,  $p<.001$ ) 공격성( $r=.40$ ,  $p<.001$ )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변수 간의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Durbin-Watson값은 1.914로 자기상관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공차한계(tolerance)는 .843으로 0.1이상이었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가 1.187로 10보다 크지 않아 다중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orrelation of research variables

(N=328)

variables	1	2	3
1. Smart phone overuse	1		
2. Aggression	.397***	1	
3. Cyber-bullying	.321***	.398***	1

\*\*\* $p<.001$

### 3.4 모형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모형의 적합도 평가지수는 다음과 같다. Table 3 검증결과 CMIN/DF, GFI, AGFI, CFI, RMSEA의 값이 수용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모형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3.5 매개효과 검증

분석결과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공격성( $\beta=.195$ ,  $p=.014$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격성은 사이버불링( $\beta=.260$ ,  $p=.007$ )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공격성( $\beta=.051$ ,  $p=.007$ )을 매개로 하여 사이버불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Table 3. Goodness of fit for structural model

(N=328)

Criteria	CMIN( $\chi^2$ )			CMIN/DF	GFI	AGFI	CFI	SRMR	RMSEA
	$\chi^2$	DF	$p$						
Acceptance criteria			>.05	≤3	≥.90	≥.90	≥.90	≤.08	≤.05-.08
Model fit	38,292	17	.002	2.252	.973	.942	.976	.084	.062

Table 4. Path estimates for structural model

Endogenous variables	Exogenous variables	Direct effect( $p$ )	Indirect effect( $p$ )	Total effect( $p$ )
Aggression	Smart phone overuse	.195(.014)*		.195(.014)*
Cyber-bullying	Smart phone overuse	.188(.009)**	.051(.007)**	.239(.009)**
Cyber-bullying	Aggression	.260(.007)**		.260(.007)**

\* $p < .05$ , \*\* $p < .01$ 

####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이 사이버불링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성별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학년, 학교생활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생활 만족도는 낮을수록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격성 또한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선행연구[12,14,16]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공감대 형성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청소년의 과도기적 성장발달특성[25]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다.

사이버불링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2학년이 1학년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사이버폭력 연구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폭력 가해자로 나타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8,16]. 또한 사이버불링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인 경우가 2~4시간인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성별차이가 없었지만 기존의 선행연구에서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2,16,33]. 이는 스마트폰 과다사용 하위요인에 따른 성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라 생각된다.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공격성, 사이버 불링은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확인되었다[13,15,28]. 이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길수록 사이버불링이 높고, 소셜미디어 중독이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선행연구와 같다[12-14]. 사이버불링은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오프라인에서 보이는 괴롭힘과는 달리 타인에 의한 발견과 인지가 어렵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연결만 되어 있으면 즉시 위해가 가능한 특징으로 인해[1,10,11]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공격성은 사이버불링 발생에 주요한 영향요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사이버불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다. 청소년의 발달특성상 또래집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는데[26]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도덕적 가치판단을 수반하는 반사회적 또래동조 성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마트폰 과다사용과 사이버불링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도 있음이 확인되었다. 사이버불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측면으로는 공격성이나 분노, 우울, 충동, 스트레스 등이 있다[15-18]. 특히 공격성은 사이버불링 행동에서 중요한 개인의 심리적 변인으로[16,32] 스마트폰 과다사용은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를 일탈행위로 이어지게 하여 사이버불링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선행연구[16,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전통적인 괴롭힘은 대인관계에서 비롯되지만 사이버불링은 내재적 요인에서 비롯된다는 결과[10]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 공격성은 사이버불링을 잘 예측하는 변수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을 감소시키기 위해 스마트폰 과다사용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및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개인의 공격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윤리의식 및 인성함양교육을 통해 공격성을 감소시키는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 REFERENCES

- [1] J. H. Lee. & S. C. Ahn. (2013). A study on the cyberbullying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response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view for the legislative introduction. *Conflict Resolution Research* 11(1), 133-157.
- [2] S. Resett. & M. G. Guadix. (2017). Traditional bullying and cyberbullying : differences in emotional problems, and personality. Are Cyberbullies more machiavellians?. *Journal of Adolescence*. 61, 113-116.  
DOI : <https://doi.org/10.1016/j.adolescence.2017.09.013>
- [3] F. Mishna, M. Saini. & S. Solomon. (2009). Ongoing and online : children and youth's perceptions of cyberbullying.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1(12), 1222-1228.
- [4] D. Olweus. (1996). Bullying at school : knowledge base and an effective intervention program.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794(1), 265-276.
- [5] I. Whitney. & P. K. Smith. (1993). A survey of the nature and extent of bullying in junior / middle and secondary schools. *Educational Research* 35(1), 3-24.
- [6] H. Cho. (2013). A study on the usage status of smartphone users by gender and age. *Internet & Security Focus*. 11, 35-51.
- [7] C. K. Kang. (2017). The strategies for cyberbullying interventions of peer counselors. *Forum For Youth Culture*. 52, 7-35.
- [8] N. Brody. & A. L. Vangelisti. (2017). Cyberbullying : topics, strategies, and sex differ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5, 739-748.
- [9] S. Shin. (2016).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strain and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Social Science*. 23(1), 339-366.
- [10] R. Kowalski, S. P. Limber. & P. Agaston. (2008). *Cyberbullying : Bullying in the digital world*. New Jersey. Blackwell Publishing.
- [11] K. H. Lee. (2014). Criminal measures against cyberbullying. *Law Review*. 56, 269-289.
- [12] H. Y. Kim. & J. S. Min. (2014). A study on the factors of youth cyberbullying : focused on off-line bullying and social media addiction.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8(4), 323-333.
- [13] R. Kowalski, S. P. Limber. & A. McCord. (2018). A developmental approach to cyberbullying : prevalence and protective factors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DOI : <https://doi.org/10.1016/j.avb.2018.02.009>
- [14] C. H. Lee. & N. M. Shin. (2017). Prevalence of cyberbullying and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Korean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8, 352-358.  
DOI : <https://doi.org/10.1016/j.chb.2016.11.047>
- [15] T. K. Oh.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ed experience and emotional behavior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18(12), 207-215.
- [16] D. Sharma, J. Kishore., N. Sharma. & M. Duggal. (2017). Aggression in schools : cyberbullying and gender issues. *Journal of Asian Psychiatry*. 29, 142-145.
- [17] E. J. Kim & J. M. Jeong.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chool life satisfaction, school violence, cyberbullying damage in high school. *Journal of the Korean Youth Studies*. 23(7), 87-115.
- [18] S. N. Kim, E. H. Bang. & Y. S. Han. (2017). Meta-analysis for exploring predictors of cyberbullying perpetration among youth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7(5), 18-33.
- [19] P. K. Smith. (2012). *Cyberbullying and cyber aggression*. Handbook of school violence and school safety. London. Routledge, 111-121.
- [20] S. M. You, J. M. Kim. & C. G. Kim. (2017).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33(3), 63-82.
- [21] C. H. Lee. & K. S. Lee. (2013). An exploration of the impact of social media use on cyberbullying by youth : a focus on network characteristics, *Journal of the Korea Youth Studies*. 24(3), 259-285.
- [22] J. W. Patchin. & S. Hinduja. (2006). Bullies move beyond the schoolyard : a preliminary look at cyberbullying. *Youth Violence and Juvenile Justice*. 4(2), 148-169.
- [23] V. Dzukaeva. (2014). Family characteristic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during late adolescence.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46, 346-352.
- [24] S. S. Lee. & S. H. Jun. (2015). An study on the causes of university students' cyberbullying : three smartphone uses of texting, sns and internet.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26(3), 187-207.
- [25] J. Y. Lee. & D. P. Park. (2015). The effects of parental overprotection on cyber violence experience :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s of trait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the Korea Youth Counseling*. 23(1), 55-76.
- [26] D. R. Boyd, H. L. Bee. & P. A. Johnson. (2014). *Lifespan*

Development. London. Pearson.

- [27] Y. O. Cho. (2013). The impact of cyberbullying victim experience and the influence of mediating effect of depression on delinquent behaviors. *Journal of the Korean Youth Studies*. 20(10), 117-142.
- [28] S. İçelloğlu. & M. S. Özden. (2014). Cyberbullying : a new kind of peer bullying through online technology and its relationship with aggression and social anxiety. *Procedia-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16, 4241-4245.
- [29] F. Paul, E. Erdfelder, A. G. Lang. & A. Buchner. (2015). G\* Power 3 :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al,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30]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11). *Development of smartphone addiction diagnosis scale*. Seoul.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 [31] Y. I. Ko. (1993). *Relationship between anger expression style and depression and aggression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Pusan University, Busan.
- [32] H. Y. Na.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attitude toward school violence and 4644viol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and smartphone overuse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 [33] K. S. Paek. (2017). A convergence study the association between addictive smartphone use, dry eye syndrome, upper extremity pain and dep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1), 61-69.

우진주(Jin-Ju Woo) [정회원]



- 2004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 발달, 간호교육, 임상간호
- E-Mail : jinjuwoo@gch.ac.kr

곽은미(Eun-Mi Kwak) [정회원]



- 2004년 2월 : 을지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사)
- 2010년 2월 : 을지대학교 임상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을지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간호교육, 교수학습법, 만성질환자 간호
- E-Mail : huhu3002@gch.ac.kr

이혜진(Hae-Jin Lee) [정회원]



- 2011년 7월 : Middlesex University 보건대학원(보건학 석사)
- 2018년 2월 :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경북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여성건강, 노화불안, 노인간호
- E-Mail : hlee0629@gch.ac.kr